

1)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방사선사의 직무 만족도 변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진단방사선과
이현복*, 안정현, 성남순, 안미섭, 윤장원, 신현금, 조남수, 정환

서 론 :

우리 나라의 의료환경은 산업의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에 힘입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너무나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간 의료계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는 일반 회사들과는 달리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으로서 지내왔고 그러한 장점의 수혜가 지속되리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는 의료계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고 몇몇 대형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 의원에서는 잠시나마 여러 유형의 혼돈 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직원의 의식 속에서 직장에 대한 불안과 앞날에 대하여 나름의 생각들이 많았던 기간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제는 IMF 경제위기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였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다. 그렇다고 마음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다고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 앞으로의 21세기에는 의료계의 직업관에서 크나큰 변화를 예고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금의 현실은 의료의 질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하는 환자에 대한 욕구는 높아 가고 있고 의료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인력에 비해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고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수도권에 재직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 등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결과 :

〈IMF 이후 방사선사의 직무만족도 조사〉의 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검사환자수의 변화에서는 증가, 많이 증가에 대한 응답이 65%
- 2) 급여변화에서 약간감소와 많이 감소의 응답이 68%
- 3) 근무환경변화에서 약간 나빠졌다고 많이 나빠졌다고의 응답이 14%
- 4)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느낀다고 많이 느낀다고의 응답이 83%로 나타나 환자 수 증가, 급여감소, 근무환경의 변화, 직업에 대한 불안감 등 모든 부문에서 근무 여건이 IMF 이전보다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 Screening Mammography에서 진단된 유병율의 연령별 실태에 관한 분석

아산재단 서울 중앙병원 진단방사선과
김정아*, 손순룡, 강성호, 류명선

목 적 :

종합건강진단시 유방촬영술로 진단된 질환을 연령별로 분석하여, 호발 연령층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인 유방 촬영술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본원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여 감별된 수진자 9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환을 종류에 따라 분류한 후, 연령별로 유병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과 카이제곱분석(Chi-square test)이었다.

결 과

1. 검사회수는 전체의 68.8%가 처음 시행하였고, 주기는 1~2년 간격으로 시행하는 수진자가 23.8%에 불과했다.
2. 유병율에 있어서는 초음파 검사나 추적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불확실한 소견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세분해 보면 결절 또는 종괴가 34.9%로 전체 질병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3. 연령별 유병율은 이상 소견이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불확실한 소견과 액와부 질환, 유방암의 경우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별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p<0.01$).
4. 질병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양성 석회화 소견에서 5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났을 뿐, 결절이나 종괴, 유방암 등에서는 40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결 론 :

연구 결과 40대에서 가장 높은 유병율이 나타남으로써 40대 여성들은 비교적 간편하고 정확한 유방촬영술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Mammogram의 실태조사

동남보건대학 방사선과, 신구대학 방사선과, 동아 엑스선기계 방사선기술연구소
이인자*, 김성수, 허준

목 적 :

문명이 발달되고 산업구조가 변화됨으로 인해 유방암 환자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방 X선 촬영술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수도권의 의료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방 X선 촬영술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어 그 내용을 보고한다.

대상 및 방법 :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종합병원 27, 일반병원 9, 의원 6, 검진 센터 1, 기타 2, 총 45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장치의 현황과 촬영조건을 조사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사선량을 측정한 후 흡수선량으로 변환하였다.

결 과 :

1. 장치의 현황
유방 X선 촬영에 사용되는 장치는 45시설 모두 전용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촬영거리는 고정된 경우가 32시설로 71%, 압박 스포트는 100% 되어 있었으며, 편면 증감지 전용 cassette를 98% 사용하고 있었다.

장치의 초점크기는 대초점 0.3mm~0.5mm, 소초점은 0.1mm~0.2mm 까지이며 초점재질은 89%인 40시설에서 Mo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filter는 Mo이 12시설, Mo or Al이 10시설, Al이 7시설이며 격자는 이동 격자가 51%인 23시설, 고정격자가 29%인 13시설, non grid는 20%인 9 시설이며, film은 감도 90인 UM-MAHC가 64%, Screen은 감도 135인 MIN-R이 76%이었다.

2. 촬영조건

유방 X선 촬영시 환자가 서서하는 경우가 77.8%, 양쪽 촬영이 98%, CC, MLO 촬영이 78%이고 100% 압박 촬영을 하며 관전압은 25~29KVp 사용이 56%, 관전류는 21~40mAs가 29%, 거리는 61~70cm가 38%이며 흡수 선량은 301~600mGy가 40%로 18시설에서 시행이 되었다.

결 론 :

유방 촬영시 피폭 선량의 제한은 300mGy 이하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1회 촬영시 선량이 8시설만이 허용치에 적합하였다. 유방 촬영시 피폭 선량 제한을 위하여 screen/film의 선정이나 촬영조건의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 화질 향상 및 피폭 선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Internet의 발전에 따른 대한 방사선사협회와 회원들의 환경변화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
오치석*, 권영갑

목 적 :

급격히 발전하는 Internet과 E-mail을 통한 “대한 방사선사협회”와 회원들의 환경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대상 및 방법 :

Internet이란 1969년 미국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어 TCP/IP protocol을 기반으로 전세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신망으로써, Internet을 통하여 교육 및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으며 E-mail을 이용하여 학술자료의 전송 및 회의 등을 할 수 있다.

결 과 :

- 1) 회원들이 자기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 2) 협회에서 회원들을 위한 원격교육
- 3) E-mail을 이용한 회의 시간 및 경비 절감
- 4) Homepage를 통한 협회 사업내용의 전달
- 5) Digital 문서와 E-mail을 이용한 비용 절감
- 6) Online 여론조사
- 7) Online 선거
- 8) 논문작성시의 참고 Website의 등장 등의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결 론 :

위에 열거한 예는 앞으로 일어날 환경 변화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협회와 회원 모두가 Internet과 E-mail을 이용하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5) 방사선과 임상실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재학생 대상)

대구보건대학 방사선과
박종삼*, 이준일

목 적 :

의료수준의 향상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방사선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한 숙련되고 정확한 임상기술 능력이 겸비된 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병원 생활의 첫 경험인 재학생 때의 임상실습이 후일 현장에서 근무 할 때 방사선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기까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 검토해 봄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최근 3년간 대구시내 5개 종합병원 진단방사선과, 핵의학과, 치료방사선과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재학생들 중 무작위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한 재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연령, 출신교, 방사선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의 필요성, 실습시기와 기간, 학점배정, 교수 순회지도, 임상실습 평가방법, 임상 실습에 임하기 전의 심리적 상태, 실습 후의 소견, 재학생이 실습할 때 바라본 선배 방사선사들의 모습 등 일반적인 특성 및 임상실습교육 전반에 걸친 설문내용을 실습이 끝난 직후 학교 강의실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1시간 후 직접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분류 정리한 후 미리 작성해 둔 master code에 따라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였으며, 모든 분포는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결론 :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95%가 임상실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습 시기로 방학중을, 실습의 시작은 2-2 학기 수업종료 후 동계방학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였다. 임상실습시 학점 부여에 관한 응답에서 51%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학점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대답한 학생도 20%가 되었고, 진단방사선과 실습기간에 대해서는 6주와 8주 이상을 각각 37%, 23%씩 응답하였다. 그리고 전공 만족도에서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2주를, 반면 전공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하는 재학생들은 1주씩을 원하고 있었다. 교수의 임상실습현장 순회지도는 74% 이상이 8주 중 1, 2회가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바람직한 실습 평가자로 교육담당방사선사, 방사선사, 담당교수, 기사장 순으로 대답하였고, 출석사항이나 시간관념 등과 환자 care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지를 실습평가 항목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였다.

6) 방사선과 학생 임상실습 평가에 관한 연구

원광보건대학 방사선과, 서울보건대학 방사선과, 서해대학 방사선과
유병규*, 양한준, 박영순

목 적 :

이상적인 임상실습의 목적을 위해서는 실습현장인 병원과 대학간에